

성남시 판교 대장지구 송전탑 지중화 최종승소에 따른 지중화 촉구 결의안

(김종환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5290
----------	------

발의연월일: 2023년 10월 일

발 의 자: 김종환, 안광림, 추선미, 박주윤,
조우현, 이영경, 황금석, 박명순,
구재평 (이상 9명)

□ 주 문

- 성남시는 성남시 판교 대장지구 송전탑 지중화 최종승소에 따른 지중화 계획수립 및 시행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 제안이유

- 성남시는 사업시행자인 ‘성남의뜰’에게 “성남판교 대장 도시개발사업”의 북측 송전선로 지중화와 관련한 행정소송이 2023. 3. 30. 최종 대법원 판결(기각) 결과에 따라 “지중화 작업 시행에 관한 계획 수립”을 조속히 수립하여 시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나
- 현재 “지중화 작업 시행에 관한 계획 수립”이 지연되고 있으며 사업시행 주최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없어 사업착수가 지연할 것으로 예상됨
- 이에 성남시에서는 사업시행 주최 등 사업 추진을 위한 대책논의를 할 수 있는 협의체(민, 관, 정)을 구성하여 조속히 대책을 논의할 수 있도록 ‘성남시 판교 대장지구 송전탑 지중화 최종승소에 따른 지중화 촉구 결의안’을 통해 요구하고자 함

☐ 결의문(안) : 별도 붙임

☐ 기타사항

- 이송기관 : 한강유역환경청(환경평가과), 경기도(기후환경정책과), 성남시,
- 붙임 : 성남시 판교대장지구 송전탑 지중화 최종승소에 따른 지중화
촉구 결의안 1부. 끝.

성남시 판교 대장지구 송전탑 지중화 최종승소에 따른 지중화 촉구 결의안

성남시의회는 【성남시 판교 대장지구 송전탑 지중화 최종 승소에 따른 지중화】를 전 시민과 함께 강력히 촉구한다.

성남시 판교 대장지구 도시개발사업에 따른 송전탑 지중화는 주민들의 생활 환경 및 안전에 핵심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안으로 주목받아 왔다. 북측 송전선로 지중화와 관련한 행정소송이 2023. 3. 30. 최종 대법원 판결선고(기각) 되었음에도 사업시행자인 ‘(주)성남의뜰’은 아직도 구체적인 지중화 작업 시행에 관한 계획 수립을 지연하고 있어 주민들의 불편함은 커져만 가고 있다.

행정소송 판결 후, 사업시행자인 ‘성남의뜰’은 환경영향평가 협의에 따른 계획수립에 착수하였으나, 지중화를 위한 계획수립 규모가 크고 선로 이설에 따른 민원 발생 요인이 많으며 복잡한 기술적·지형적·환경적 요인들과 관련기관과의 협의 등으로 인하여 지중화 계획이 지체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송전탑 지중화의 시행, 비용 부담 주체, 그리고 사업 시기와 같은 핵심 사항들이 명확하지 않아 주민들의 요구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 마련이 절실한 실정이다.

이에 성남시의회는 ‘성남시 판교 대장지구 송전탑 지중화 최종승소에 따른 지중화’의 간절한 염원을 담아 강력히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 성남시 및 사업시행자인 ‘(주)성남의뜰’은 “지중화 작업
시행에 관한 계획수립”을 조속히 수립할 것을 강력히 촉구
한다.

하나. 성남시 는 조속한 사업시행을 위한 민·관·정 협의체를
구성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23. 10.

성 남 시 의 회